

「해녀 노 짓는 노래」 수록 자료집 개관 및 해제

이성훈*

차례

- I. 머리말
- II. <해녀 노 짓는 노래> 자료 수집사 개관
- III. <해녀 노 짓는 노래> 수록 자료집 해제
- IV. 맺음말

I. 머리말

<해녀 노 짓는 노래>는 제주도 출신 해녀들이 뱃사공과 함께 돛배를 타고 본토로 出稼하거나 해산물을 채취하기 위해 뱃물질하러 오갈 때, 좌현에서 짓걸이노를 짓는 해녀와 우현에서 짓걸이노를 짓는 해녀 또는 船尾에서 하노를 짓는 뱃사공과 좌·우현에서 짓걸이노를 짓는 해녀 등으로 짝을 나누어 되받아 부르기(同·先後唱)나 메기고받아 부르기(先後唱)의 방식으로 부르는 노래이다.¹⁾ 필자가 조사한 바로는 1929년에 金料白이 『三千里』創刊號²⁾에 소개한 <해녀 노 짓는 노래>가 최초의 자료이다. 이후

* 숭실대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1) 이성훈, 「<해녀 노 짓는 노래>의 가창방식」, 『溫知論叢』 제9집, 溫知學會, 2003, p.37.

2) 金料白, 「女人國巡禮, 濟州島海女」, 『三千里』創刊號, 三千里社, 1929. 6. 12, p.23.

1931년에 수집자 미상의 7편의 자료³⁾가 있다. 단행본으로 간행된 민요자료집에 수록된 자료로는 1939년 林和의 『朝鮮民謠選』⁴⁾에 17편이 있다. 1950년대부터 본격적인 <해녀 노 짓는 노래>가 수록된 자료집이 간행되었다. 한편 1945년 이전의 동아일보와 매일신보 기사 속에도 <해녀 노 짓는 노래> 자료가 간혹 보인다.

제주도 민요 연구 자료의 해제 작업은 좌혜경과 변성구에 의해 이루어졌다. 1차적 서지 작업은 좌혜경에 의해 이루어졌다. 좌혜경은 제주도 민요 연구 자료들을 연대별로 구분하여 1920년대부터 1950년대까지,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로 시기를 구분하여 93년까지의 자료를 해제했다.⁵⁾ 2차적 서지 작업은 변성구에 의해 이루어졌다. 변성구는 1920년대부터 해방 이전까지, 해방 이후부터 1960년대 말까지, 1970년대부터 1980년대 말까지, 1990년대부터 2000년 초대까지로 시기를 4기로 구분하여 고찰했다.⁶⁾ 필자는 제주도 민요 중에서 <해녀 노 짓는 노래>만을 대상으로 하여 채록자가 의도적으로 각편을 나누어 기록한 것과 채보자가 구연한 대로 기록한 것으로 나누어 자료와 자료집을 간략하게 해제한 바 있다.⁷⁾

본고는 제주도 민요 중에서 <해녀 노 짓는 노래>의 자료가 수록된 단행본과 개별 논저만을 대상으로, <해녀 노 짓는 노래>의 자료 수집 및 정리사를 개관함과 아울러 <해녀 노 짓는 노래>가 수록된 문헌들을 해제하는 것이 목적이다.

3) 미 상, 「海女の 노래-濟州島民謠-」, 『別乾坤』第6卷第7號(제42호), 開關社, 1931. 8. 1, p.3.

4) 林 和, 『朝鮮民謠選』, 學藝社, 1939, pp.239~242.

5) 좌혜경, 「제주도 민요에 대한 문헌 해제」, 『민요론집』제3집, 민요학회, 1994, pp.261~325.

6) 변성구, 「濟州島 民謠 研究의 成果와 課題」, 『민요론집』제7집, 민요학회, 2003, pp.133~176.

7) 이성훈, 「해녀 <노 짓는 노래>의 사실과 현장성」, 『溫知論叢』제8집, 은지학회, 2002, pp.181~210.

II. <해녀 노 짓는 노래> 자료 수집사 개관

<해녀 노 짓는 노래>⁸⁾를 수집한 자료와 자료집은 제보자·채록지역·채록일시를 명시하지 않은 채 몇 편의 각편만을 단편적으로 소개한 자료, 제주 방언의 가치를 살리기 위해 창자가 구연한 발음 그대로 사설을 수록하고 난해한 방언은 주석을 단 자료, 사설의 제재나 내용을 중심으로 사설을 분류하여 수록하고 표준어로 어석을 달고 어휘의 주석까지 덧붙인 자료,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의 구비문학 현지조사 방법⁹⁾에 따라 제보자가 구연한 대로 사설을 수록하고 제보자의 간략한 생애력까지 기술한 자료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해녀 노 짓는 노래>의 자료 수집 및 정리사를 다음과 같이 편의상 3개의 시기로 구분하고자 한다.

- ① 제1기 : 단편적인 자료 수집 및 소개
- ② 제2기 : 본격적인 자료 수집 및 정리
- ③ 제3기 : 체계적인 자료 수집 및 정리

단, 자료 수집 시기가 자료집 간행 시기보다 현격히 앞서는 경우는 자료 수집 시기를 기준으로 시기를 구분했다.

1. 제1기 : 단편적인 자료 수집 및 소개

金料白(1929 : 1편)¹⁰⁾을 필두로 시작되는 1920년대부터 1960년대 초반까

8) 제주도 노동요의 요종은 본토의 여느 민요와 같이 후렴구에 따라 확연히 구분된다. 제주도 <노 짓는 노래>의 특징은 ‘이어도사나’ 또는 ‘이여씨’ 등의 후렴이 붙는다. 제주도의 <노 짓는 노래>는 창자가 간혹 남성인 경우도 있지만 주로 여성인 해녀들이 불렀다. 해녀나 뱃사공이 노 저으며 부르는 노래의 분류 명칭은 민요자료집마다 다른 분류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본고는 <해녀 노 짓는 노래>가 수록된 자료집의 해제를 창자의 성이나 분류의 명칭에 구애받지 않고 후렴구와 사설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했다.

9) 조동일, 「구비문학 현지조사 방법」, 『구비문학의 세계』, 새문사, 1980, pp.48~98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어문연구실 편, 『구비문학 조사 방법』, 1979.

지가 이 시기에 속한다. 이 시기에 수집된 자료들은 대개 사설을 중심으로 수록하고 있다. 제보자나 수집지역이 밝혀져 있지 않고, 채보된 악보도 수록되어 있지 않다. 필자미상(1931 : 7편¹¹⁾), 高橋亨(1968 : 14편¹²⁾), 林和(1939 : 17편¹³⁾), 金思燁·崔常壽·方鐘鉉(1948 : 7편¹⁴⁾), 高晶玉(1949 : 6편¹⁵⁾), 崔永日(1956 : 17편¹⁶⁾), 姜時宅(1957 : 1편¹⁷⁾), 金永三(1958 : 24편¹⁸⁾), 梁弘植·吳太用(1958 : 14편¹⁹⁾), 秦聖麒(1958a : 32편²⁰⁾/1958b : 36편²¹⁾/1958c : 40편²²⁾/1960d : 36편²³⁾), 任東權(1961a : 7편²⁴⁾), 金俊培(1962 : 1편²⁵⁾) 등은 <해녀 노 짓는 노래>의 사설을 소개하는 데 그치고 있다. 이 가운데 金科白(1929 : 1편)은 <해녀 노 짓는 노래>를 최초로 소개한 자료로 파악된다. 제주도 민요의 수집과 분류는 본격적으로 林和(1939 : 17편)에서 시작된다고 좌혜경은 지적한 바 있다.²⁶⁾ 林和(1939 : 17편)는 민요 채집에 있어서 제보자의 신원(성명, 연령, 직업 등)을 밝힘으로써 제대로 된 구비문학

10) 金科白, 「女人國巡禮, 濟州道海女」, 『삼천리』제1호(1929년 6월 12일), 1929, pp.2~23.

11) 「海女の 노래, 濟州道民謠」, 『별건곤』제42호(1931년 8월 1일).

12) 高橋亨, 『濟州島の民謠』, 天理大學 東洋學研究所, 1968.

13) 林和, 이재욱 해제, 『朝鮮民謠選』, 學藝社, 1939, pp.239~242.

14) 金思燁·崔常壽·方鐘鉉, 『朝鮮民謠集成』, 正音社, 1948.

15) 高晶玉, 『朝鮮民謠研究』, 首善社, 1948, pp.368~371.

16) 崔永日, 「濟州島の 民謠」, 『崇實大學報』제2호, 崇實大學學藝部, 단기4289(1956), pp.232~271.

17) 姜時宅, 「濟州民謠의 特色」, 『濟大學報』창간호, 濟州人學學徒護國團, 1957, p.121.

18) 金永三, 『濟州島民謠集』, 中央文化社, 1958, pp.7~34.

19) 梁弘植·吳太用, 『濟州郷土記』, 1958, pp.107~116.

20) 秦聖麒, 『濟州島民謠』제1집, 희망프린트사, 1958, pp.126~153.

21) 秦聖麒, 『濟州島民謠』제2집, 중앙미술사프린트부, 1958, pp.51~74.

22) 秦聖麒, 『濟州島民謠』제3집, 성문프린트사, 1958, pp.61~92.

23) 秦聖麒, 『오돌또기』, 우생출판사, 1960(단기4293년), pp.121~141.

24) 任東權, 『韓國民謠集』I, 集文堂, 1961.

25) 金俊培, 「韓國 民謠의 韻律 研究」,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62, pp.5~56.

26) 좌혜경, 「제주도 민요에 대한 문헌 해제(I)」, 『民謠論集』제3호, 민요학회, 1994, p.266.

조사·연구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秦聖麒(1958a : 32편)에는 제보자와 수집 장소를 밝히지 않았는데, 秦聖麒(1958b : 36편/1958c : 40편)에는 수집 장소를 밝혔다. 그리고 秦聖麒(1960d : 36편)은 秦聖麒(1958a : 32편/1958b : 36편/1958c : 40편)에 수록된 108편 가운데 36편을 가려뽑은 개정판이다. 또한 秦聖麒(1960d : 36편)에는 김국배가 채보한 악보를 수록하고 있고 아울러 제주도민요분류일람표를 작성하여 목차 앞에 제시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秦聖麒(1958b : 36편/1958c : 40편)에서 밝혔던 수집 장소를 제시하지 않았으며 사설의 표기에 있어서는 ‘·’를 그에 가까운 음을 따서 현대어에 쓰는 철자 표기로 바뀌어서 표기한 단점이 있다.

2. 제2기 : 본격적인 자료 수집 및 정리

金榮敦(1965a : 199편²⁷⁾)을 필두로 하여 1960년대 중반부터 1970년대 말까지가 이 시기에 속한다. 이 시기에 수집된 자료들은 대개 수집된 자료의 수집 시기, 수집 지역, 제보자의 이력 등을 밝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휘의 주석 및 채보한 악보까지도 수록한 시기다. 또한 이 시기는 제주 출신 연구자들이 본격적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제주도 민요만을 대상으로 하여 단행본으로 출간한 시기다. 秦聖麒(1968e : 36편²⁸⁾), 任東權(1974b : 6편²⁹⁾/1975c : 6편³⁰⁾/1979d : 15편³¹⁾/1980e : 4편³²⁾), 文化公報部 文化財管理局(1974 : 9편³³⁾) 등이 있다.

이 가운데 金榮敦(1965a : 199편)은 高橋亨(1968 : 14편), 林和(1939 : 17

27) 김영돈, 『濟州島民謠研究(上)』, 一潮閣, 1965, pp.210~265.

28) 秦聖麒, 『南國의 民謠』, 제주민속문화연구소, 1968(『南國의 民謠』, 正音社, 1977), pp.123~137.

29) 任東權, 『韓國民謠集』Ⅱ, 集文堂, 1974.

30) 任東權, 『韓國民謠集』Ⅲ, 集文堂, 1975.

31) 任東權, 『韓國民謠集』Ⅳ, 集文堂, 1979.

32) 任東權, 『韓國民謠集』Ⅴ, 集文堂, 1980.

33) 文化公報部 文化財管理局, 『韓國民俗綜合調查報告書』(濟州道 篇), 1974. pp.361~369.

편), 金思燁·崔常壽·方鐘鉉(1948 : 7편), 高晶玉(1949 : 6편), 崔永日(1956 : 17편), 金永三(1958 : 24편), 梁弘植·吳太用(1958 : 14편) 秦聖麒(1958a : 32편/1958b : 36편/1958c : 40편/1960d : 36편) 등에 수록된 자료들의 장단점을 보완하고 체계화하여 제보자의 성명과 성별 및 나이, 수집 시기와 수집 지역, 채보한 표준 악보까지 수록하여 제주 민요의 본격적인 자료집이다.

秦聖麒(1968e : 36편)는 앞서 발간한 秦聖麒(1960d : 36편)에 제주도 민요의 개관을 덧붙이고 서명을 달리해서 펴낸 자료집인데, 秦聖麒(1960d : 36편)에 밝히지 않았던 제보자와 수집지역 및 일시를 밝히고 있는 것은 金榮敦(1965a : 199편)의 영향을 받은 듯하다.

任東權이 간행한 『韓國民謠集』 전 7권 가운데 <해녀 노 짓는 노래>를 수록한 것은 任東權(1961a : 7편)을 시발로 하여 任東權(1974b : 6편/1975c : 6편/1979d : 15편/1980e : 4편)까지이다.³⁴⁾ 여기에는 그가 직접 채록한 것도 더러 있지만 다른 민요 자료집에 수록된 것을 재수록하는 등 간접 수집한 것들이 많다. 그리고 <해녀 노 짓는 노래>의 자료는 제1기의 수집 정리 방법과 크게 다른 점이 없지만 『韓國民謠集』 전 7권은 한국 민요 자료를 정리하여 집대성했다는 점에 의의를 찾을 수 있다.

3. 제3기 : 체계적인 자료 수집 및 정리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의 구비문학 현지조사 방법론에 기초한 현장론적 조사 방법에 따라 자료가 수집된 1980년대 이후의 시기를 지칭한다. 1999년부터는 본토에 정착한 제주 출신 해녀들의 자료들도 수집되기 시작하여 자료 수집 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金榮敦·玄容駿(1980a : 1편³⁵⁾/1981b : 7편³⁶⁾/1983c : 3편³⁷⁾), 藝術研究室

34) 任東權의 『韓國民謠集』 I ~ V에 실린 전체 자료의 지역별 색인 작업을 좌혜경이 했다. (좌혜경, 「한국민요 지역별 자료 색인」, 『민요론집』 제2집, 민요학회, 1993, pp.429~613.

(1984 : 15편³⁸), 울산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1990 : 1편³⁹), 김영돈(1993b : 21편⁴⁰), 임석재(1997a : 2편⁴¹), 濟州市 編(2000 : 30편⁴²), 강한호(1999 : 2편⁴³), 부산남구민속회(2001 : 2편⁴⁴), 李東喆(2001 : 3편⁴⁵), 이성훈(2002a : 103편⁴⁶)/2003b : 21편⁴⁷), 임석재(2004b : 2편⁴⁸) 등이 있다. 이외에도 제주대학교 국문과·국어교육과의 『학술조사보고서』, 국어교육과·백록어문학회의 『백록어문』, 국문과의 『국문학보』에 수록된 65편⁴⁹ 등이 있다.

-
- 35) 金榮敦·玄容駿, 『韓國口碑文學大系』9-1(북제주군 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
- 36) 金榮敦·玄容駿, 『韓國口碑文學大系』9-2(제주시 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1.
- 37) 金榮敦·玄容駿, 『韓國口碑文學大系』9-3(서귀포시·남제주군 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3.
- 38) 藝術研究室, 『韓國의 民俗音樂 : 濟州道民謠篇』,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4, pp.104~132.
- 39) 울산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울산울주지방 민요자료집』, 울산대학교출판부, 1990.
- 40) 金榮敦, 『濟州의 民謠』, 新亞文化社(民俗苑), 1993.
- 41) 임석재, 『임석재채록 한국구연민요-자료편(해설·악보·가사)-』, 집문당, 1997, pp.168~175.
- 42) 제주시 편, 『濟州의 郷土民謠』, 제주시(도서출판 예술), 2000.
- 43) 강한호, 「해녀 민속 문화의 이동에 관한 연구 -경남 사랑도의 구비문학을 중심으로-」,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99. 8, p.59.
- 44) 부산남구민속회, 『남구의 민속과 문화』, 부산남구민속회, 2001 10. 8. pp.508~509, p.515.
- 45) 李東喆, 『江原 民謠의 世界』, 국학자료원, 2001, p.166, pp.214~219.
- 46) 이성훈, 「경남 통영시 해녀 <노 짓는 노래> 조사」, 『한국민요학』제11집, 한국민요학회, 2002, pp.235~265.
- 47) 이성훈, 「강원도 속초시 해녀 <노 짓는 노래>와 생애력 조사」, 『승실어문』제19집, 승실어문학회, 2003, pp.459~507.
- 48)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임석재 채록 한국 구연민요 자료집』, 민속원, 2004, pp.640~642.
- 49) ① 『학술조사보고서』(제주대 국문과·국어교육과) : 제8집(1984, 해녀노래 3편·뱃노래 1편).
 ② 『백록어문』(창간호~제10집 : 제주대 국어교육과·제11집부터 : 백록어문학회) : 창간호(1986, 해녀노래 4편), 제2집(1987, 해녀노래 5편), 제5집(1988, 뱃노래 4편), 제6집(1989, 해녀노래 1편), 제7집(1990, 뱃노래 1편), 제9집(1992, 뱃노래 1편), 제11집(1995, 해녀노래 1편·물질허는 소리 1편), 제14집(1998, 해녀소리 1편, 노 짓는 소리 3편, 물질할 때 하는 소리 1편), 제15집(1999, 노 짓는 소리 5편), 제

Ⅲ. <해녀 노 짓는 노래> 수록 자료집 해제

<해녀 노 짓는 노래>가 수록된 자료집의 해제는 자료 수집 시기가 자료집 간행 시기보다 현격히 앞서는 경우라도 자료집 간행 연대를 순서로 하여 해제하기로 한다.

① 金科白(1929 : 1편) : 제보자와 수집지역이 밝혀져 있지 않다. 필자가 조사한 바로는 <해녀 노 짓는 노래> 자료를 최초로 소개한 것으로 파악된다.

② 필자미상(1931 : 7편) : 채록자와 제보자가 밝혀져 있지 않다.

③ 林 和(1939 : 17편) : 여기에는 <海女歌>란 명칭으로 17편이 수록되어 있다. 제보자가 서귀포 京化順 33세 海女라고 밝히고 있다. 민요 채집에 있어서 제보자의 신원(성명, 연령, 직업 등)을 밝힘으로써 제대로 된 구비문학 조사·연구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④ 金思燁·崔常壽·方鐘鉉(1948 : 7편) : 제보자가 밝혀져 있지 않다. 노래의 명칭을 붙이지 않고 여러 가지 제주도 민요를 수록하고 있는데, 이 중에 후렴 '이에도사나'가 있고 사실 내용이 <해녀 노 짓는 노래>로 볼 수 있는 것은 7편이다.

⑤ 高晶玉(1949 : 6편) : 여기에 수록된 7편(247~253번 자료)은 수집지역이 濟州島라고만 되어 있고, 제보자 이력이나 수집일자가 밝혀져 있지 않다. 著者は “濟州島海女노래는, 그 經濟的自立性과 肉體的健康에 基因하는 것이겠지만, 婦謠의 모든 슬픔과 忍從을 차는 역센 노래들이다”라고 규정한 다음 <海女노래>라는 항목을 설정하여 9편(245~253번 자료)을 수록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가운데 245번 자료는 “양태 맨들면서 부르는 노래다”라고 했고, 246번 자료는 “網巾짤 때 부르는 노래다”라고 설명

16집(2000, 노 짓는 소리 6편),

③ 『국문학보』(제주대 국문과) : 제8집(1986, 해녀노래 3편), 제9집(1989, 해녀노래 3편), 제10집(1990, 물질 소리 1편), 제12집(1994, 해녀노래 1편), 제13집(1995, 뱃노래 4편·노 짓는 소리 2편·물질허는 소리 3편), 제14집(1997, 노 짓는 소리 3편), 제15집(2001, 물질허는 소리 3편, 해녀노래 4편).

을 달고 있다. 따라서 고정옥이 말한 <海女노래>라는 것은 <해녀 노 짓는 노래>가 아니고, 제주도 민요 중에서 해녀들이 부르는 모든 노래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한 것이라 하겠다.

⑥ 崔永日(1956 : 17편) : 여기에 수록된 <海女歌> 17편은 “金台俊 蒐集所藏이었던 濟州道 民謠로서 1939년 3월 學藝社刊行 朝鮮文庫本 『朝鮮民謠選』에 記載되었던 部分을 참고 삼아 併記한 것이다.”라고 附記하고 있다. 또한 <선가> 15편도 수록되어 있는데, 사실 내용은 <해녀 노 짓는 노래>들과 유사하나 후렴이 “아— 아—, 아 이여차”등으로 되어 있으므로 제외시켰다.

⑦ 姜時宅(1957 : 1편) : 여기에 수록된 1편은 제주민요의 내용을 고찰하면서 소항목의 노래명을 <潛水歌>라고 했지만, 내용 설명에서는 <海女歌>라고 했다. 이 논문의 緒言에서 “筆者는 여기에 自身이 蒐集한 몇 首와 『朝鮮民謠集成』의 濟州편을 資料로 濟州民謠의 特色을 더듬어 보려한다”고 했는데, 다른 요증에서는 출처를 밝혔지만 <맷돌노래>와 <潛水歌>는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있다. 다만 <맷돌노래> 2首 중에 둘째 首는 金思燁·崔常壽·方鐘鉉 共編, 『朝鮮民謠集成』(正音社, 1948) 292쪽에 수록된 자료와 사실이 같다. 하지만 <맷돌노래> 첫째 首와 <潛水歌>의 사실은 『朝鮮民謠集成』에 수록되지 않은 자료인데, 필자 자신이 수집한 것으로 보인다.

⑧ 金永三(1958 : 24편) : 韓容柱가 수집한 것을 김영삼이 편집한 것이다. 海女노래篇에 17편과 鬻노래篇에 7편이 수록되어 있는데, 사실의 제재나 내용에 의거해서 각편마다 소제목을 붙이고 있다. 또한 凡例에 인쇄소에 고어 활자가 없는 것이 많아 표준말 활자로 제주말에 가깝게 발음되도록 노력했고, 방언과 기타 어휘는 그 의미가 확실한 것만 주석을 달았다고 밝혔다.

⑨ 梁弘植·吳太用(1958 : 14편) : <海女歌> 9편, <漁船歌> 5편이 수록되어 있는데, 제보자가 밝혀져 있지 않다. 제주 태생의 두 편자는 序文에서 “本書는 郷土濟州 全般에 關한 一般的인 案内版의 小冊子로서 將次 郷

土濟州에 關한 諸般事項의 研究를 企圖하는 人士들의 便宜를 圖謀하고자 既刊된 郷土研究의 諸文獻中에서 重要な 部分을 拔萃하여 그것을 根幹으로 삼고 새로이 調査蒐集한 資料를 枝葉으로 별려 概括의이나마 編案한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⑩ 秦聖麒(1958a : 32편) : 제보자와 수집 장소를 밝히지 않았다. 가창자의 성명과 수집 장소를 밝히지 않았다. 제주도의 고유 발음을 표기하려고 노력했다. 주석은 가창자의 설명을 중심 삼아 표준어로 옮겨서 가급적 독단을 피했다.

⑪ 秦聖麒(1958b : 36편) : 수집 장소를 밝혔다. 제1집에 밝히지 않았던 수집 장소를 밝히고 있다. 발음 표기와 주석은 제1집의 방식과 같다.

⑫ 秦聖麒(1958c : 40편) : 수집 장소를 밝혔다. 제2집과 마찬가지로 수집 장소를 밝혔다. 발음 표기와 주석은 제1집의 방식과 같다.

⑬ 秦聖麒(1960d : 36편) : 이 자료집은 秦聖麒(1958a, 1958b, 1958c)에서 수록했던 108편의 <해녀 노 짓는 노래> 가운데 36편을 간추려 출간한 자료집이다. 사설의 표기는 “민요 표기에 있어서는 사투리 그대로 적음을 원칙으로 했으나 현대어에 쓰고 있지 않은 「·」는 그에 가까운 음을 따서 현대어에 쓰는 철자로 바꿔 넣어 일반의 필요에 좇았습니다”라고 일러두기에 밝히고 있다. 秦聖麒(1958a : 32편/1958b : 36편/1958c : 40편)에 수록된 108편 가운데 36편을 가려뽑은 개정판이다. 또한 秦聖麒(1960d : 36편)에는 김국배가 채보한 악보를 수록하고 있고 아울러 제주도민요분류일람표를 작성하여 목차 앞에 제시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秦聖麒(1958b : 36편/1958c : 40편)에서 밝혔던 수집 장소를 제시하지 않았으며 사설의 표기에 있어서는 ‘·’를 그에 가까운 음을 따서 현대어에 쓰는 철자 표기로 바꿔서 표기한 단점이 있다.

⑭ 任東權(1961a : 7편) : 여기에 수록된 7편은 <檣 짓는 노래1·2·3>(281~287번 자료)라는 분류 명칭으로 남성 노동요로 분류되어 있는데 제보자와 채록 일시가 기록되어 있지 않다.

⑮ 金俊培(1962 : 1편) : 노래 명칭과 제보자는 제시되어 있지 않지만 사

설 내용이 <해녀 노 짓는 노래>로 볼 수 있는 1편이 수록되어 있다.

⑩ 金榮敦(1965a : 199편) : 이 자료집은 제보자가 구연한 사설을 의미 단락별로 나누고, 나는 각편을 제재별로 분류하여 수록하고 있다. 또한 사설의 제재나 내용을 중심으로 각편을 분류하여 수록했다. 이 가운데 金榮敦(1965a : 199편)은 高橋亨(1968 : 14편), 林和(1939 : 17편), 金思燁·崔常壽·方鐘鉉(1948 : 7편), 高晶玉(1949 : 6편), 崔永日(1956 : 17편), 金永三(1958 : 24편), 梁弘植·吳太用(1958 : 14편) 秦聖麒(1958a : 32편/1958b : 36편/1958c : 40편/1960d : 36편) 등에 수록된 자료들의 장단점을 보완하고 체계화하여 제보자의 성명과 성별 및 나이, 수집 시기와 수집 지역, 채보한 표준 악보까지 수록하여 제주 민요의 본격적인 자료집으로 자리매김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金榮敦(1965a : 199편)은 <해녀 노 짓는 노래>의 제보자와 수집지역 및 일시를 정확히 밝히고 있는 최초의 자료집이다. 그리고 金榮敦(1965a : 199편)은 秦聖麒(1960d : 36편)의 자료 수록 방식과 같다. 하지만 金榮敦(1965a : 199편)은 이전의 여타 자료집과는 달리 각편마다 제주도 방언의 특수성에서 오는 이해의 난점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직역을 원칙으로 표준어화한 譯歌를 原歌의 바로 밑에 수록하였다.⁵⁰⁾ 특수한 어휘들에는 각주를 달았고 김국배가 채보한 악보까지 부록으로 수록하고 있다. <해녀 노 짓는 노래>를 가장 많이 수록한 자료집으로 제주도 민요의 실상을 여실히 보여주는 자료집이다. 또한 사설을 제재에 따라 의미 단락별로 나누어 수록함으로써 한 제보자가 구연한 사설이 여러 각편으로 나뉘어 제재별로 분산 정리되어 있다. 따라서 <해녀 노 짓는 노래>의 실상과 내용을 파악하는 데에는 용이하다. 하지만 한 제보자가 구연한 사설의 현장론적 실체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 자료로서의 가치는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⑪ 高橋亨(1968 : 14편) : 高橋亨은 1929년에 제주도에 와서 처음으로 제주 민요를 채록했는데, 여기에 실린 민요 자료는 1932년부터 1937년까지

50) 변성구, 「제주도 민요 연구의 성과와 과제」, 『민요론집』 제7집, 민요학회, 2003, p.148. 이 논문은 『제주도연구』 22집(제주학회, 2002)에도 실려 있다.

수집한 것이다. 사설의 일본어 어석을 달고 있다.

⑱ 任東權(1974b : 6편) : 여기에는 남성 노동요 <노 짓는 노래> 1편(625번 자료)과 <뱃노래> 1편(660번 자료), 여성 노동요 <海女謠> 4편이 수록되어 있다. 이 중에 <海女謠1>(787번 자료)는 흑산도지방에서, <海女謠2·3>(788·789번 자료)는 제주지방에서, <해녀요4>(790번 자료)는 秦聖麒 『오돌또기』에서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789번 자료인 <海女謠3>은 임동권이 제주지방에서 채집한 자료가 아니다. 이 789번 자료는 林和의 『朝鮮民謠選』(學藝社, 1939) 239면~242면까지 수록된 자료를 인용한 것인데, 출전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자칫 임동권이 수집한 것으로 오인할 여지가 다분히 있다. 하지만 이는 任東權이 『韓國民謠集』Ⅱ를 간행하면서 출전을 누락한 것으로 보인다. 『韓國民謠集』Ⅱ 범례에 “文獻을 인용한 資料는 歌尾에 單行本에 限해서 出典을 밝혔으며, 出典의 略符號는 다음과 같다. …民選 林 和 編 朝鮮民謠選…”라고 명시했을 뿐만 아니라 『韓國民謠集Ⅱ』 72면~73면까지 수록된 “<김매는 노래7>”의 歌尾에 “(大邱地方) 民選89”라고 출전을 밝혔기 때문이다.

⑲ 任東權(1975c : 6편) : 여기에 수록된 6편의 <海女謠>는 『韓國民俗綜合調查報告書(濟州道篇)』(文化公報部 文化財管理局, 1974)에 수록된 자료이다.

⑳ 秦聖麒(1977e : 36편) : 이 자료집은 秦聖麒(1960d : 36편)에 수록된 자료와 같으나 표기에 있어서 제주 방언을 살리려고 노력했다. 일러두기에 “...생활상의 차이에서 오는 지역 고유의 사투리를 비롯한 특유의 발음을 되도록 그대로 표기해서 제맛을 살리려고 노력하였다. 제주도 방언에 있어서의 특이한 발음인 ‘ㅣ’와 ‘·’의 겹소리는 ‘ㅍ’로 표기했다.”고 밝힌 것이 그것이다. 이후 이 자료집은 濟州民俗研究所 판으로 재간행되었다. 이 자료집은 秦聖麒(1960d)에 제주도 민요의 개관을 덧붙이고 書名만을 다르게 하여 간행한 자료집이다. 그 후 1977·1979년에 초판과 재판을 正音社에서 내고, 다시 1991년에 제주민속문화연구소에서 간행되었다. 秦聖麒(1960d)에서 밝히지 않았던 수집 시기, 수집 지역, 제보자의 이력 등을

밝히고 있는데, 著者(제주민속박물관장, 전화 064-755-1976)에게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는 秦聖麒(1958a, 1958b, 1958c)를 채록할 당시에 기록해 두었던 채록노트를 확인하여 附記한 것이다. 주석은 제보자의 설명을 바탕으로 기록하고 있으며, 수기로 작성한 악보까지 수록하여 본격적인 자료집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 사설의 표기는 秦聖麒(1960d)와는 달리 ‘·’를 사용하여 표기하고 있는데, 제주도 방언에 있어서의 특이한 발음인 ‘ㅣ’와 ‘·’의 겹소리는 ‘ㅿ’로 표기했다. 秦聖麒(1977e : 36편)는 앞서 발간한 秦聖麒(1960d : 36편)에 제주도 민요의 개관을 덧붙이고 서명을 달리해서 펴낸 자료집인데, 秦聖麒(1960d : 36편)에 밝히지 않았던 제보자와 수집지역 및 일시를 밝히고 있는 것은 金榮敦(1965a : 199편)의 영향을 받은 듯하다.

㉑ 任東權(1979d : 15편) : 여기에는 수록된 <海女謠1·2·3·4·6·7·8·11·14>는 濟州地方에서, <海女謠5·9·10·12·13·15>는 北濟州地方에서 採集했음을 밝히고 있다.

㉒ 任東權(1980e : 4편) : 여기에는 남성 노동요 <노 젓는 노래>(濟州地方) 1편과 여성 노동요 <海女謠> 3편이 수록되어 있다. 이 중에 <海女謠1·3>은 濟州地方에서 채집한 것이고, <海女謠2>는 金永三 編·韓容柱 蒐集 『濟州島民謠』(中央文化社, 단기4291, 1958, pp.7~24) ‘海女노래篇’에 17편으로 구분되어 수록된 것을 한 편으로 묶은 것이다.

㉓ 文化公報部 文化財管理局(1974 : 9편) : 제보자의 주소·성별·연령을 기입하고 있다. 채록자는 김영돈은 “전송자의 주소는 현거주지가 아니라도 전송자가 가장 오래 살았던 지역을 기입했고, 연령은 1971년을 기준으로 했다”고 밝히고 있다.

㉔ 金榮敦·玄容駿(1980a : 1편/1981b : 7편/1983c : 3편) : 여기에 수록된 자료는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어문연구실에서 간행한 「口碑文學調査方法」에 의거하여 현장에서 직접 조사한 것으로, 제보자의 직업·성격·태도 등에 대해서도 약술하고 있다. 또한 실제 歌唱狀況에 역점을 두어 채록자가 의미 단락별로 각편을 나누지 않고 제보자가 구연한 대로 사설을 기록하고 있다.

㉕ 藝術研究室(1984 : 15편) : 여기에 수록된 15편(92~106번의 자료)은 모두 채보한 악보를 수록하고 있다. 이 가운데 7편인 92·94·95·96·97·101번 자료는 『韓國口碑文學大系』9-2에, 98번 자료는 『韓國口碑文學大系』9-1에 수록된 사설을 악보로 채보한 것이다.

㉖ 울산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1990 : 1편) : 제보자의 생애력, 제보자의 외양, 노래를 배우게 된 동기, 구연할 때의 상황 등을 간략히 소개했다.

㉗ 金榮敦(1993b : 21편) : 여기에 수록된 21편의 <해녀노래>는 현장론적 방법에 의해 金榮敦(1965a : 199편)과는 달리 각편의 의미 단락의 구분 없이 제보자가 구연한 실제적인 歌唱狀況에 역점을 두어 수록되어 있다.

㉘ 임석재(1997a : 2편) : 여기에 수록된 2편은 1962년에 채록한 것이라 밝히고 있다.

㉙ 강한호(1999 : 2편) : 여기에 실린 2편의 자료는 경남 사랑도에서 채록한 것으로 제보자는 제주도 북제주군 구좌읍 종달리가 고향인 김순열(53세, 여)와 우이순(64세, 여)이다. 이 자료는 본토에 出稼하여 물질하다가 본토에 정착해서 살고 있는 제주도 출신 해녀의 <해녀 노 짓는 노래>를 채록하여 소개한 최초의 자료로 보인다. 다만, 사설의 표기는 제주 방언의 표기법을 고려하지 않고 표준어로 되어 있고, 제보자의 생애력이나 채보한 악보도 수록하지 않은 단점이 있다.

㉚ 濟州市 編(2000 : 30편) : 여기에 수록된 30편의 <해녀 노 짓는 소리>는 제주시청의 용역을 받아 제주교육대학교 조영배 교수가 제주시 지역에서 채록한 자료와 기존 자료 중에서 제주시 관내에 것만을 재정리하여 수합한 것이다. 수록된 자료 중에 1~13번까지는 조영배, 14·15·18·19·20·21·22·23번은 김영돈(『濟州島民謠研究(上)』, 일조각, 1965), 16·17번은 화북동 운영위원회 편(『화북동 향토지』, 화북동 운영위원회, 1991), 24·25·26번은 김영돈(『韓國民俗綜合調查報告書』(濟州道 篇), 文化公報部 文化財管理局, 1974.), 27번은 현용준 외(제주시·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편, 『제주시의 향토 민속』, 제주시, 1992), 28번은 김영돈(제주도 편, 『제주의 민요』, 제주도, 1991 ; 김영돈, 『濟州의 民謠』, 新亞文化社(民俗

苑), 1993), 29·30번은 김영돈(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한국구비문학대계 9-2, 제주도 제주시편』, 1980)이 채록한 사설이다.

㉑ 부산남구민속회(2001 : 2편) : 부산 남구 용호동에 정착한 해녀들로부터 채록한 자료이다. 사설뿐만 아니라 해녀들의 정착과정과 활동 등에 대해서도 소개하고 있다.

㉒ 李東喆(2001 : 3편) : 여기에 수록된 자료는 강원도 동해출장소 편, 『강원 어촌지역 전설 민속지』(강원도, 1995, p.172, pp.225~231.)에 처음 수록되었던 자료를 재수록한 것이다. 166면과 214~218면에 수록된 자료는 <海女 뱃노래>, 218~219면에 수록된 자료는 <이어도 사나>라는 명칭으로 수록되어 있다. 이 자료는 1995년 4월 30일 이동철 교수의 지도 아래 관동대학교 <민요조사반>에 의해 채록되었고, 정리는 국어교육과 2년 장중석이 맡았다고 밝혔다. 사설을 제주방언으로 표기하지 않고 표준어로 번역하여 재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㉓ 이성훈(2002a : 103편) : 이 자료는 본토에 出稼하여 물질하다가 본토에 정착해서 살고 있는 제주도 출신 해녀의 <해녀 노 짓는 노래>를 집중적으로 조사 채록하여 보고한 최초의 자료이다. 이 자료는 2001년 12월 20일~21일·2002년 8월 18일 2차에 걸쳐 조사한 것이다. 제보자의 주소·성별·연령과 요약한 생애력 및 채보한 악보와 주석까지 달았다. 사설의 표기는 제주방언연구회의 제주어 표기법을 충실히 따르고 있다. 또한 사설의 정리는 가창 현장을 증시하여 제보자가 구연한 순서 그대로 수록했는데, 자료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편의상 의미단락 앞에 자료번호를 붙였다.

㉔ 이성훈(2003b : 21편) : 이 자료는 제보자가 초용으로 부산에 出稼하여 경남 거제도에서 3년간 물질하다가 강원도 속초시에서 정착해서 살고 있는 제주도 출신 해녀의 <해녀 노 짓는 노래>와 생애력을 제보자가 구연한 순서대로 채록하여 보고한 최초의 자료이다. 이 자료는 2001년 12월 23일에 조사한 것이다. 제보자의 이력, 채보한 악보, 주석, 사설의 표기, 사설의 정리 등은 이성훈(2002a)의 수록 방식과 같으나 생애력은 제보자

가 제보해 준 그대로 상세하게 수록했다.

㉔ 한국정신문화연구원(2004b : 2편) : 여기에 수록된 2편은 임석재가 1962년~1972년에 제주도 일원에서 채록한 것으로 보이는데, 채록일시와 장소가 기록되어 있지 않다. <네 짓는 소리>, <자진 네 짓는 소리>라는 명칭으로 수록되어 있다. 이 중에 1편은 이정란이 채보한 악보가 수록되어 있다.

㉕ 제주대학교 국문과·국어교육과의 『학술조사보고서』, 국어교육과·백록어문학회의 『백록어문』, 국문과의 『국문학보』에 수록된 65편 : 여기에 수록된 <해녀 노 짓는 노래>의 사설들은 각 권호마다 일정한 기준 없이 제각기 방식으로 수록되어 있다.

IV. 맺음말

이상에서 <해녀 노 짓는 노래>의 자료 수집사를 개관하고 수록 자료집을 해제해 보았다. 지금까지 제주도 지역에서 채록된 <해녀 노 짓는 노래>의 자료는 754편인데, 이 중에서 여러 자료집에 중복 수록된 각편을 제외하면 680편이다. 이 680편 중에는 사설을 의미 단락별로 나누어 수록한 사설을 개별 각편의 수로 잡았고, 또한 의미 단락별로 나누지 않은 사설은 1편으로 본 수치이다. 本土로 出嫁 물질을 나왔다가 본토에 정착한 해녀 제보자로부터 채록한 자료는 132편인데, 이 가운데 126편은 4명의 제보자가 구연한 사설을 의미 단락별로 나눈 각편의 수이다. 현재 본토에 정착한 제주 출신 해녀들 중에 노를 저어 본 경험이 있는 해녀들의 숫자는 점점 줄어드는 추세이다. 사정이 이러하다 보니, 이들로부터 <해녀 노 짓는 노래>의 자료 수집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자료집에 수록된 <해녀 노 짓는 노래> 각편들의 문제점을 간략히 들면, 제주 해녀나 뱃사공들이 노를 저으며 부르는 노래인 <해녀 노 짓는

노래>나 <뱃사공 노 짓는 노래>의 분류명이 여러 가지 명칭으로 기록되어 있다. 또한 각편의 구분도 자료집마다 공통된 기준 없이 다르게 나누어져 있다. 사설 내용이나 체재별로 각편이 나누어져 있는가 하면 현장론적 방법에 따라 체보자가 구연한 대로 의미단락의 구분 없이 수록된 자료들도 있다. 이제 민요 연구자들이 수집된 자료를 일정한 기준에 의해 재정리하고 또한 각편을 나누는 기준을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해녀 노 짓는 노래>를 채록함에 있어 사설 중심의 채록만이 아닌 체보자의 상세한 생애력과 더불어 채취물의 종류와 수의 구조, 출가 지역별 해산물과 작업 도구의 명칭, 해산물 채취의 경험적 기술과 지식, 출가 지역의 고유한 토속지명, 신앙(속신)과 금기어, 해녀들의 은어와 직업어, 구연 현장의 상황, 출가 지역별 어장의 특성과 입어 관행, 본토 주민과의 교류, 해녀 동아리와 여가 활동, 출가 지역별 물질 작업 구역과 해로, 물질 작업 해역의 여(暗礁)의 명칭과 해도, 출가지에서의 의식주 문제, 바다의 조류와 기상 상태를 감지하는 방법, 물질 작업과 관련한 민간요법, 해난 사고에 대처하는 방법, 직업 의식과 자녀 교육 등을 아우르는 조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 「海女の 노래, 濟州道民謠」, 『별건곤』제42호, 開闢社, 1931.
 姜時宅, 「濟州民謠의 特色」, 『濟大學報』창간호, 濟州大學學徒護國團, 1957.
 강원도 동해출장소, 『강원 어촌지역 전설 민속지』, 강원도, 1995.
 강한호, 「해녀 민속 문화의 이동에 관한 연구 -경남 사량도의 구비문학을 중심으로-」,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99.
 高橋亨, 『濟州島の民謠』, 天理大學 東洋學研究所, 1968.
 高晶玉, 『朝鮮民謠研究』, 首善社, 1948.
 『국문학보』제8집,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86.

- 『국문학보』제9집,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89.
- 『국문학보』제10집,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90.
- 『국문학보』제12집,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94.
- 『국문학보』제13집,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95.
- 『국문학보』제14집,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97.
- 『국문학보』제15집,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2001.
- 金科白, 「女人國巡禮, 濟州島海女」, 『三千里』創刊號, 三千里社, 1929.
- 金思燁·崔常壽·方鐘鉉, 『朝鮮民謠集成』, 正音社, 1948.
- 金榮敦, 『濟州島民謠研究(上)』, 一潮閣, 1965.
- 金榮敦, 『濟州의 民謠』, 新亞文化社(民俗苑), 1993.
- 金榮敦·玄容駿, 『韓國口碑文學大系』9-1(북제주군 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
- 金榮敦·玄容駿, 『韓國口碑文學大系』9-2(제주시 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1.
- 金榮敦·玄容駿, 『韓國口碑文學大系』9-3(서귀포시·남제주군 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3.
- 金永三, 『濟州島民謠集』, 中央文化社, 1958.
- 金俊培, 「韓國 民謠의 韻律 研究」,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62.
- 文化公報部 文化財管理局, 『韓國民俗綜合調查報告書』(濟州道 篇), 1974.
- 『백록어문』창간호, 제주대학교 국어교육과 국어교육연구회, 1986.
- 『백록어문』2, 제주대학교 국어교육과 국어교육연구회, 1987.
- 『백록어문』5, 제주대학교 국어교육과 국어교육연구회, 1988.
- 『백록어문』6, 제주대학교 국어교육과 국어교육연구회, 1989.
- 『백록어문』7, 제주대학교 국어교육과 국어교육연구회, 1990.
- 『백록어문』9, 제주대학교 국어교육과 국어교육연구회, 1992.
- 『백록어문』11, 백록어문학회, 1995.
- 『백록어문』14, 백록어문학회, 1998.

『백록어문』15, 백록어문학회, 1999.

『백록어문』16, 백록어문학회, 2000.

변성구, 『濟州島 民謠 研究의 成果와 課題』, 『민요론집』제7집, 민요학회, 2003.

변성구, 『제주도 민요 연구의 성과와 과제』, 『제주도연구』22집, 제주학회, 2002.

부산남구민속회, 『남구의 민속과 문화』, 부산남구민속회, 2001.

梁弘植·吳太用, 『濟州郷土記』, 프린트판, 1958.

藝術研究室, 『韓國의 民俗音樂: 濟州道民謠篇』,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4.

울산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울산울주지방 민요자료집』, 울산대학교출판부, 1990.

李東喆, 『江原 民謠의 世界』, 국학자료원, 2001.

이성훈, 『경남 통영시 해녀 <노 짓는 노래> 조사』, 『한국민요학』제11집, 한국민요학회, 2002.

이성훈, 『해녀 <노 짓는 노래>의 사실과 현장성』, 『溫知論叢』제8집, 은지학회, 2002.

이성훈, 『<해녀 노 짓는 노래>의 가창방식』, 『溫知論叢』제9집, 溫知學會, 2003.

이성훈, 『강원도 속초시 해녀 <노 짓는 노래>와 생애력 조사』, 『승실어문』제19집, 승실어문학회, 2003.

林 和, 『朝鮮民謠選』, 學藝社, 1939.

任東權, 『韓國民謠集』I, 集文堂, 1961.

任東權, 『韓國民謠集』II, 集文堂, 1974.

任東權, 『韓國民謠集』III, 集文堂, 1975.

任東權, 『韓國民謠集』IV, 集文堂, 1979.

任東權, 『韓國民謠集』V, 集文堂, 1980.

임석재, 『임석재채록 한국구연민요-자료편(해설·악보·가사)-』, 집문

당, 1997.

林和, 이재옥 해제, 『朝鮮民謠選』, 學藝社, 1939.

제주시 편, 『濟州의 鄕土民謠』, 제주시(도서출판 예술), 2000.

조동일, 「구비문학 현지조사 방법」, 『구비문학의 세계』, 새문사, 1980.

좌혜경, 「제주도 민요에 대한 문헌 해제(Ⅰ)」, 『民謠論集』제3집, 민요학회, 1994.

좌혜경, 「한국민요 지역별 자료 색인」, 『민요론집』제2집, 민요학회, 1993.

秦聖麒, 『濟州島民謠』제1집, 희망프린트사, 1958.

秦聖麒, 『濟州島民謠』제2집, 중앙미술사프린트부, 1958.

秦聖麒, 『濟州島民謠』제3집, 성문프린트사, 1958.

秦聖麒, 『오늘또기』, 우생출판사, 1960.

秦聖麒, 『南國의 民謠』, 제주민속문화연구소, 1968.

秦聖麒, 『南國의 民謠』, 正音社, 1977.

崔永日, 「濟州島의 民謠」, 『崇實大學報』제2호, 崇實大學學藝部, 1956.

『학술조사보고서』제8집,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국어교육과, 1984.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어문연구실 편, 『구비문학 조사 방법』, 1979.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임석재 채록 한국 구연민요 자료집』, 민속원, 2004.